

# 'LH 특검' 전격 합의... 여야, 불뚱 어디로 튀나 초긴장

### 4·7 재보선 한달도 안남아 정국 가를 핵심선수 급부상 유불리 예측 어려워...대상·범위 등 놓고 수싸움 예고

여야가 16일 'LH 사태' 대응을 위한 특검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4·7 재보선을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국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특검을 통해 국면을 돌파해 내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제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겠다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자체가 어느 한 쪽의 유불리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특검 임명부터 조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시작부터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민주당으로선 재력자가 많은 야권 인사들을 검증

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며 "특검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흘러간 논의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자당 현역의원 6명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만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사건이 터진다면 재보선은 물론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면돌파로 나설 모습이다. 이번 사태를 여야를 떠난 부동산 적폐 정산의 문제로 규정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개발까

지 수사 범위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 범위에 대해 "국회의원과 단체인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 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며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는 물론 청와대 참모진까지 전수조사에 넣자고 요구하고 나서며 LH 사태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으로 여당의 허를 찔렀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핵심 인사는 "민주당이 시간끌기용, 몰타기용 제안으로 특검을 내놨던 것이지만 우리는 진정성 있게 해보자고 받은 것"이라며 "특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일단 부동산 이슈 자체를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부동산 정국을 장기화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동산과 재산 관련 비리 의혹으로 탈당한 박정호 전의원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국민의힘 역시 특검 리스크가 여당 못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법사위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오른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불신임안 부결

### 과반 미달로...찬성표, 반대보다 많아 리더십 타격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장성2)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의장 불신임안을 놓고 빚어진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만 의장 불신임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 단 한 표 차이로 의장 불신임안이 부결됐다는 점에서 김 의장 리더십 타격은 물론 일부 도의원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오전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임종기 의원(민주당·순천2)이 대표 발의한 김한중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재적 의원 56명 중 제적 대상인 김 의장을 빼고 55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28명, 반대 27명으로 과반수인 29명을 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과 민생당 비례대표 김복실 의원 등 15명이 지난해 12월 18일 발의했다. 불신임 사유로는 민간공공 이직 및 민주당 원내대표 처우와 관련된 의원 5분 자유발언 불허 등을 내세웠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명분이 약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기류 속에 이날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예상과 깨고 단 한 표로 부결됐다.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으나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김 의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남기게 됐다. 일부 의원들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5분 발언 불허했다고 의장을 불신임하는 게 세상에 어디에 있다. 창피하다", "우세스럽다"고 했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56명으로 민주당 51명, 민생당 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안철수, 합당 승부수

### 단일화 후 추진...오세훈 "당장해야"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야권 단일화 승패와 무관하게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는 야권 대통합의 실행 방안을 3단계로 설명했다. 자신이 야권 단일후보가 돼 국민의힘과 통합선거대책위를 만들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당원의 동의를 얻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한 뒤,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안 후보의 합당 추진 발표에 대해 "즉각 합당"을 촉구했다. 오 후보는 입장문에서 "늦었지만 환영"이라면서도 "왜 단일화 이루어야 하나. 합당의 시작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여의도 브리핑

### 윤영덕 '교육부 추정' 특수학교 보조인력 예산 등 질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16일 열린 교육부 추정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특수학교와 학급에 대한 교육보조인력 예산, 특수교사 및 교육보조인력 백선집중 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학기부터 정부방침으로 장애학생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특수교사만으로는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 전면등교 원칙을 발표한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의지인데, 보조인력에 국비 40%만 투입한다는 건,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도 40%밖에 안된다는 것이냐"며 "코로나 시기에 맞는 예산편성방식인지 의심이



된다"고 질의했다. 교육부가 제출한 추정안에 따르면,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에 소요되는 총 금액 275억 3천만 원 중 40%는 국고로, 60%는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특수학교와 학급의 교사,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백선집중 계획을 점검했다. 특수학교와 학급에서 근무하는 기존 보조인력 1만3000여 명에 예산확보로 추가되는 보조인력 3천5백여 명까지 백선집중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교육부에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형배, 유권자 관리·정책 발굴 '정치 AI' 개발 계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국회의원이 당원과 유권자 등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리하고, 정책 발굴과 여론조사 등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정치 AI' 개발에 나선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첫 도입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인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특히 광주의 핵심 사업인 AI 분야가 정지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 AI 업체와 함께 정치 AI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하기도 한 이 업체는 유권자와 당원이 접속해 정책이나 법안 준비에 참여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당원·유권자별 지역과 연령 등 성향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바로 반영하고, 이같은 빅데이터를 유권자 관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어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지역민



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 역할도 곁들인다.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유권자의 시간 대별 동선 등을 선거 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의 AI 산업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동료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간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김건너면 통광주빌딩 내

##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